

P2-05

안동지역 초등학교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의 신체 특성 및 혈중 성분 비교

이혜상¹, 정운선, 박응임.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본 연구는 비만아동의 체지방율, 혈압, 혈중 지질 및 콜레스테롤 농도, 혈당 농도, 기초대사량, 휴식대사량 등을 정상체중 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유발가능성을 진단하고자 수행되었다. 비만을 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를 사용하였는데, 비만도는 실제체중을 표준체중으로 나눈 값으로서,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1999)에서 제시한 신장별 체중표의 평균값을 표준체중으로 인정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근거하여 구하였다. 비만도가 0.9미만은 저체중군, 0.9 이상에서 1.1 미만은 정상체중군, 1.1 이상에서 1.2 미만은 과체중군, 1.2 이상은 비만군으로 판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5학년의 정상체중 아동 13명과 비만아동 22명이며, 조사기간은 2002년 11월 21일~2003년 2월 19일로 신체계측 및 혈압, 혈액의 생화학적 검사와 휴식대사량을 측정하였으며, Harris-Benedict 법에 의하여 기초대사량을 계산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t 검정과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신장은 정상체중군과 비만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 비만도, BMI, 허리둘레, 체지방율, 기초대사량은 비만군이 유의하게($p<.001$) 높았다. 수축기 혈압은 비만군이 유의하게($p<.05$) 높았으나 이완기 혈압은 체중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휴식대사량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HDL, LDL 콜레스테롤, 혈당은 비만군이 유의하게($p<.0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서부터 비만으로 인한 순환기계 질환이나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만도, 체지방율, BMI는 체중, 허리둘레, 기초대사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수축기 혈압은 비만도, BM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이완기 혈압은 비만도, 체지방율, BMI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비만도와 BMI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LDL/HDL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중성지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지방율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LDL/HDL, Atherogenic index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HDL/총 콜레스테롤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만도보다는 체지방율이 혈중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특성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혈당은 체지방율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만도, BMI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체지방율보다는 비만도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P2-06

안동지역 초등학교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의 식행동 및 어머니의 식사지도

김명정, 이혜상¹, 정운선¹, 박응임¹.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¹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아동비만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비만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식사지도와 아동의 식행동, 식지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1년 12월 1일~12월 14일에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9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236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33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8.7%), 이 중 부실응답자와 저체중(비만도 0.9 미만), 과체중(비만도 1.1-1.2) 아동을 제외하고 159부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비만을 판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만도를 사용하였는데, 비만도는 실제체중을 표준체중으로 나눈 값으로서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1999)에서 제시한 신장별 체중표의 평균값을 표준체중으로 인정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근거하여 구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0.0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정, t 검정, χ^2 검정,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신뢰도계수 α 값이 .50 이상이 되는 척도인 간식관련 지식(2문항, $\alpha=.5727$), 식사조절(7문항, $\alpha=.7010$), 식사기호특성(7문항, $\alpha=.7034$)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아동에 대하여 t 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어머니의 식사지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아동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식관련 지식과 식사기호특성은 비만군과 정상체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식조절 특성에 있어서는 비만군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p<.01$) 낮게 나타났다. 비만군의 어머니는 정상체중군의 어머니에 비해 '과식하지 않도록 하라'고 더 많이($p<.001$)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고루 먹으라'는 식생활 지도는 정상체중군의 어머니와 비만군의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상체중 아동의 경우 식사조절 행동과 '과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어머니의 식사지도가 유의한($p<.05$)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항목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식행동이 나쁜 경우 어머니의 식사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식사지도가 아동의 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한 아동비만에 대한 종단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